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부모양육태도 및 부모와 대화시간의 영향*

The Influence of Parenting Attitudes and Conversation Hours Between Parent and Child on Children's Happiness

문예은¹ 이주연²

Ye Eun Mun¹ Joo-Yeon Lee²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examined the main effects and interaction effect of parenting attitudes and conversation hours between parent and child, by focusing on parental influence among factors impacting children's happiness.

Methods: This study used the data from 2,578 four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the first waves of the Korean Child Youth Panel Study(KCYPS) 2018.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correlation analysis and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children's happiness and socio-economic variables such as parental education level, family's income, and family type.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main effect of all sub-factors of parenting attitude and conversation hours between parent and child on children's happines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only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structural parenting attitude and parent-child conversation hour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at is, children who had more conversations with parents with structural parenting attitudes providing guidelines were reported to be particularly happy.

Conclusion/Implicat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examining overall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ffect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 and child to understand parental factors impacting children's happiness.

key words parenting attitude, conversation hours between parent and child, children's happiness, KCYPS 2018

* 본 논문은 2020년 한국보육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¹ 제1저자

전남대학교 대학원
생활환경복지학과 박사수료

² 교신저자

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과 교수
(e-mail : idscot@jnu.ac.kr)

I. 서론

행복은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로 최근 행복에 대한 관심은 율로(yolo),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 스라벨(study and life balance) 및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과 같은 신조어를 탄생시켰다. 이처럼 개인의 관점과 추구하는 이상향 등에 따라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 행복감(happiness)은 인간이 자신의 일상적 경험에 대해 주관적으로 갖게 되는 긍정적이고 전반적인 안녕감(well

being)을 의미한다(이수진, 정익중, 2020; Galambos, Fang, Krahn, Johnson, & Lachman, 2015; Yang, Knobe, & Dunham, 2020).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이를 확장하는 일은 삶의 만족과 안녕을 추구하는 과정이라 하겠다. 특히 어린 시절의 행복감은 성인이 된 후의 전반적 행복감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Yang, 2008). 이러한 이유로 행복에 관한 연구는 초기에는 주로 성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감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김영철, 2018; 조성연, 신혜영, 최미숙, 최혜영, 2009; O'Rourke & Cooper, 2010). 지난해 UN이 발표한 '2019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수준은 전체 156개국 중 54위에 그쳐 낮은 수준을 보인다. 더욱이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 국가 중 20위로 최하위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한겨레, 2019).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와 방정환재단이 보고한 한국 아동·청소년 행복지수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조사 결과(염유식, 김경미, 2019)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주관적 건강, 삶의 만족, 학교생활 만족, 어울림, 소속감, 외로움의 6개 항목으로 측정되었는데, 이 중 특히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들은 자신의 건강상태와 삶에 대한 만족 항목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해당연구에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그렇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이 초등학생 20%, 중학생 28%, 고등학생 29%로 나타나 매우 심각한 수준을 나타냈다. 해당 연구에 참여한 아동 7,454명 중 약 1,500명 이상의 많은 아동이 행복하지 않은 것을 넘어 극단적인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율이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초등학생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보고들은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은 물론, 특히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요인과 그들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아동의 행복감 향상에 실제적인 제언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과 그 시급성을 시사한다.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양한 변인들을 제시한다(김진미, 2019; Gilman & Huebner, 2003; Morgan et al., 2011). 여기에는 부모의 가정의 경제수준, 직업, 학력, 아동의 성별과 연령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요인(이수진, 정익중, 2020)과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같은 아동의 개인 내적 요인(김진미, 2019; 조은정, 2014),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같은 가족 환경적 요인(권미나, 이진숙, 2015; 서재욱, 정윤태, 2014; 송원숙, 심재웅, 2018; Gilman & Huebner, 2003; Milevsky, Schlechter, Netter, & Keehn, 2007), 그리고 친구나 교사, 학교생활과 같은 학교 환경적 요인(남궁지영, 2015; 송경오, 2011)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다양한 영향요인들 중 본 연구는 아동의 가장 밀접한 환경이라 할 수 있는 가족, 그 중에서도 부모의 영향력에 주목하고자 한다. 앞서 소개한 행복지수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조사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행복의 요소를 질문한 결과에 의하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가족을 꼽은 아동들은 경제 수준, 친구관계 등과 같은 다른 요소를 선택한 아동들에 비해 가장 높은 행복지수를 보였다(염유식, 김경미, 2019). 이는 아동의 행복감을 이해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의 초점이 가족이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특히 아동의 경우 가족 중 그 영향력이 가장 큰 부모와의 관계가 아동 행복감 연구의 시작점이 되어야 함을 확인시켜 준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부모와의 관계에 연구의 초점

을 두고자 한다.

부모는 아동이 태어나서 최초로 맺는 인간관계로 아동의 신체, 인지, 정서·사회 등의 전반적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는 아동의 행복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이미지, 문혁준, 2011). 부모 관련 변인들 중, 양육태도 또는 양육행동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양상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부모 관련 변인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을 연구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부모의 양육태도 또는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류민영, 정현숙, 2015; 모상현, 이중섭, 2012; 이은진, 2011; 전해진, 유미숙, 2015; 정은선, 2008; Masoud, Sharzad, Leila, & Elaheh, 2011). 그리고 이들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 또는 양육행동이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고한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 중 돌봄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하고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낮게 지각하는 아동일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았으며(이은진, 2011; 정은선, 2008), 부모가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ascoe, Davies, Sturge, & Cummings, 2009). 또한 방임과 같은 부정적 양육은 아동의 행복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전해진, 유미숙, 2015), 온정과 통제가 적절한 권위 있는 양육행동(Furnham & Cheng, 2000) 및 감독(전해진, 유미숙, 2015)은 아동의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처럼 부모가 아동의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에 적절한 양육행동을 취할 경우 아동의 심리적 만족감이 증가하여 전반적인 행복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된다(권미나, 이진숙, 2015).

한편, 아동기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이다(박정은, 황춘화, 이수진, 2019). 의사소통은 인간관계의 핵심 요소로서, 특히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아동은 자신에 대한 부모의 태도, 사고, 사랑, 가치를 전달받는다(Thomas, 1977). 따라서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관련 요인 중 하나로 부모자녀 간 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련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가족 관계가 친밀하고 의사소통이 잘 될수록 아동의 행복감은 높으며(유미숙, 정계숙, 박수홍, 차지량, 홍광표, 2013),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이 개방적이고 온화할 경우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박정은 등, 2019). 또는 부모와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것보다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적게 하는 것이 행복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보고되기도 한다(윤연정, 이미숙, 2019).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부모의 긍정적인 지지를 받는 의사소통을 할 경우 아동은 긍정적인 정서 경험을 통해 더 높은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이진숙, 김은주, 2013). 이러한 결과들은 부모와의 의사소통 방식이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한편,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영향력은 의사소통의 방식뿐 아니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시간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 즉, 부모와 자녀가 얼마만큼의 대화를 나누는지는 부모-자녀 간 관계형성의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녀의 행복감과도 관련된다고 하겠다. 실제로 부모와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 간의 대화시간과 아동의 행복감 간의 관계를 연구한 문수경과 이무영(2008)에 따르면,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아동의 행복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국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아동행복생활시간’에 대한 연구결과(정익중, 정선영, 이수진, 정수정, 2019)에 의하면, 아동들이 가족과 함께 대화를 나누거나 같이 보내는 시간은 학원이나 숙제 등의 교육을 위해 보

내는 시간 및 각종 미디어 이용시간에 비해 더 적은 것으로 보고된다. 이처럼 최근 들어 아동이 학교와 학원 등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더욱이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의 보급으로 아동들 역시 SNS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가족 내 대화시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변인 중 특히 대화시간이라는 양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종합할 때,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의 관계 변인들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태도나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아동의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보고한다. 그러나 이들 연구로부터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기존의 연구들이 부모의 이와 같은 영향 변인을 각각 독립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김희연, 김군수, 신기동 그리고 송승현(2015)은 부모-자녀 대화시간이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 대화시간이 길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율성이 전제되지 않은 부모 주도의 일방적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일부 있다고 보고하면서 부모-자녀 관계의 질과 양이 모두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관련 변인의 질적 특성과 양적 특성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즉, 부모-자녀 관계의 질적 측면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 변인을, 그리고 양적 측면으로서 부모와의 대화시간 변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때 두 변인의 영향력을 각각 살펴보는 것에 더해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와 대화시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두 변인의 영향력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한편, 아동의 행복감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이 행복감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아동의 성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아가 여아보다 높은 행복감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박병선, 2019; 서재욱, 정운태, 2014; Lyons, Otis, Huebner, & Hills, 2014)와 반대로 여아가 남아보다 행복감이 높다는 연구결과(김은설 등, 2016; 김희중, 2012), 그리고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보고(윤연정, 이미숙, 2019; 김진미, 2019; Morgan et al., 2011) 등 매우 다양한 결과가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 간의 불일치는 아동의 행복감의 성차에 대한 재분석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부모 학력에 대한 영향력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안나영, 유영달, 2013; 이주연, 한세영, 2019).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개 저소득 가정의 아동일수록 행복감이 낮으며,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행복감은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서재욱, 정운태, 2014; 정익중, 이수진, 강희주, 2020; Chung, 이상균, 유조안, 2015). 그러나 김진미(2019)의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이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소득수준을 아동이 지각한 경제수준이 아닌 부모가 보고한 월평균 가구소득으로 측정했다는 점에서 결과의 차이가 기인했을 수 있다. 한편, 가족의 유형과 관련하여 한부모 가정의 아동은 양부모 자녀에 비해 행복감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유은경, 최혜경, 배한나, 이연주, 2017). 이처럼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들이 아동의 행복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연구에 따라 그 결과에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 해당 변인들의 영향력을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아동의 행복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하고자 한다. 즉, 아동의 성

별, 부모의 학력, 가정의 월평균 소득, 한부모 가정 여부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와 대화시간의 양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때, 전술한 바와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와 대화시간의 영향력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부모와의 관계적 측면의 효과를 부각시키고 구체적인 실천기술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대화시간 및 아동의 행복감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부모양육태도(따스함, 거부, 강요, 구조제공, 비밀관성, 자율성지지)와 부모와 대화시간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8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 2,607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의 1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한국아동·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 2019). 이 중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아동의 자료 및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하고 총 2,578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인은 부모양육태도, 부모와 대화시간, 행복감 등의 3가지 변인이며, 모두 아동이 응답하였다.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아동의 성, 월평균소득, 부학력, 모학력, 가족유형을 포함하였으며, 해당 변인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 부모가 응답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제시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대상 아동 2,578명 중 남자는 1300명(50.4%), 여자는 1278명(49.6%)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부모의 경우 학력에서 부는 961명(37.3%), 모는 849명(32.9%)으로 4년제 대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월평균 소득의 경우,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인 1,026명(39.9%)으로 가장 많았으며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인 700명(27.2%), 600만원 이상~800만원 미만인 421명(16.3%)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한편, 가족유형을 한부모 가정과 양부모 가정으로 구분하였을 때 한부모 가정의 아동은 182명으로 7.1%의 비율을 보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 (%)
변인	구분	부	모	N
아동 성	남	1300(50.4)		2578
	여	1278(49.6)		
학력	고졸 이하	649(25.2)	747(29.0)	2578
	전문대졸	596(23.1)	754(29.2)	
	4년제 대졸	961(37.3)	849(32.9)	
	대학원 이상	282(10.9)	185(7.2)	
	기타	90(3.5)	43(1.7)	
월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134(5.2)		2573
	200-400만원 미만	700(27.2)		
	400-600만원 미만	1,026(39.9)		
	600-800만원 미만	421(16.3)		
	800만원 이상	292(11.3)		
가족유형	한부모 가족	182(7.1)		2578
	양부모 가족	2396(92.9)		

주. 학력과 월평균 소득의 경우 원자료의 구간을 조정하여 제시함.

2. 측정도구

1) 부모양육태도

부모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태명과 이은주(2017)의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양육태도 척도가 사용되었다. 부모양육태도는 따스함(문항 예: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신다.), 거부(문항 예: 부모님은 내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신다.), 자율성지지(문항 예: 부모님은 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강요(문항 예: 부모님은 나에게 이래라저래라 하신다.), 구조제공(문항 예: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도움을 주신다.), 비밀관성(문항 예: 부모님이 약속을 해도, 그 분들이 지키실 지는 알 수 없다.)의 6개 하위요인을 포함하며, 하위요인별로 각 4개 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된다. 응답 및 점수 부여 방식은 4점 척도로 각 하위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의 특성이 강한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한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하위요인별로 따스함 .91, 거부 .64, 자율성지지 .85, 강요 .71, 구조제공 .72, 비밀관성 .75로 나타났다.

2) 부모와 대화시간

부모와 대화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는 배상률, 김형주 그리고 성은모(2013)의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의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문항에서는 학원 및 과외시간, 독서시간, 부모대화시간 등과 같은 다양한 일과에 대해 아동과 청소년들이 하루 중

평균 몇 시간을 할애하는지 질문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이들 항목 중 부모와 대화시간 항목만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응답방식은 30분 단위 총 7개 범주로 이루어져, ‘전혀 안함(1점)~4시간 이상(7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질문은 평일과 주말 각각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평일과 주말 두 응답값의 평균을 산출한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3) 행복감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이정림 등(2015)이 연구한 한국아동패널 2015의 육아정책연구소행복지수 관련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로 ‘전반적으로 나는...’, ‘전반적으로 아주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즐겁게 지내는 편이다. 나는...’등을 포함하여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2문항은 ‘아주 불행한 사람이다(1점)~아주 행복한 사람이다(4점)’으로, 나머지 2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로 측정한다. 이 중 1문항(‘전반적으로 아주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특별히 우울한 일이 없어도 행복하지 않아 보인다. 나는...’)만 역산한 후 합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6으로 나타났다.

4) 사회인구학적 변인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인으로 아동의 성, 부모학력, 월평균소득, 한부모 가정 여부를 선정하였다. 월평균소득은 100만원 단위로 ‘소득 없음~1000만원 이상’, 부학력과 모학력은 ‘학교안다님/초졸/중졸/고졸/전문대졸/4년대졸/대학원졸/잘모르겠음/해당없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력변인의 경우 분석에 사용할 때는 ‘잘모르겠음’과 ‘해당없음’을 제외한 후 서열변수로 분석하였다.

3. 자료분석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5.0 프로그램(IBM Co., Armonk, NY)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자녀의 행복감에 대한 부모양육태도와 부모와 대화시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경우 각 분석에 투입된 부모양육태도와 부모와 대화시간의 하위요인별 $M \pm 1/2SD$ 값을 회귀식에 대입하여 그래프를 그리고 이를 제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아동의 행복감과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부모의 양육태도 및 대화시간과 아동 행복감 간의 관계를 밝히는 본 연구의 주요 분석에 앞서,

각 변인들의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인들의 왜도의 절대값은 .14~1.20으로 3미만, 첨도의 절대값이 .01~1.13과 같이 10미만으로 정규성 가정(de Carvalho & Chima, 2014)을 충족하였다. 또한 상호작용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회귀분석 과정에 앞서 살펴본 독립변인들의 분산확대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가 1.02~1.87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아동의 행복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독립변인 및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의 경우 상관분석 결과에 따라 통제변인으로서 선정 여부를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한부모인 경우 부적인 상관을($r = -.12, p < .001$) 나타내었으나 월평균 소득($r = .12, p < .001$)과 부학력($r = .05, p < .01$) 및 모학력($r = .039, p < .05$)은 모두 아동의 행복감에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아동의 성별의 경우 아동의 행복감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아동의 행복감과 부모 양육태도를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따스함($r = .46, p < .001$), 자율성지지($r = .45, p < .001$) 및 구조제공($r = .30, p < .001$)은 모두 행복감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거부($r = -.33, p < .001$), 강요($r = -.25, p < .001$)와 비밀관성($r = -.39, p < .001$)은 모두 부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한편, 아동의 행복감과 대화시간은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다($r = .22, p < .001$).

표 2. 주요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아동 성	1												
2. 부학력	.02	1											
3. 모학력	.03	.44***	1										
4. 월평균소득	-.04*	.15***	.28***	1									
5. 한부모여부	.01	.22***	.07***	-.33***	1								
6. 따스함	.01	.07**	.04*	.09***	-.05**	1							
7. 거부	-.03	-.08***	-.09***	-.10***	.06**	-.33***	1						
8. 강요	.06**	-.02	-.02	-.04	.03	-.24***	-.32***	1					
9. 구조제공	.05**	.05*	.03	.04*	-.06**	.39***	-.15***	-.08***	1				
10. 비밀관성	-.02	-.06**	-.07**	-.09**	.06**	-.35***	.36***	.43***	-.24***	1			
11. 자율성지지	-.01	.07***	.03	.08***	-.07***	.65***	-.33***	-.25***	.41***	-.40***	1		
12. 대화시간	-.05**	.07***	.10***	.10***	-.04*	.21***	-.14***	-.10***	.14***	-.15***	.18***	1	
13. 행복감	.02	.05**	.04*	.12***	-.12***	.46***	-.33***	-.25***	.30***	-.39***	.45***	.22***	1
왜도						-1.20	.25	.25	-.37	.56	-1.07	.14	-.68
첨도						1.09	-.48	-.09	.08	.01	1.13	-.96	.44

* $p < .05$, ** $p < .01$, *** $p < .001$.

2.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 하위요인과 부모와 대화시간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부모양육태도와 부모와 대화시간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독립변인을 투입하였다. 1단계 회귀식에는 통제변인인 한부모 여부,

가정의 월평균소득, 부와 모의 학력, 아동성별을 투입하였으며, 2단계에는 독립변인인 양육태도의 각 하위변인과 부모와 대화시간 변인을 투입하였다. 마지막 단계에는 2단계 회귀식에 양육태도×부모와 대화시간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함으로써 상호작용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1) 따스한 양육태도 및 부모와 대화시간의 영향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부모의 따스한 양육태도와 대화시간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본 결과, 먼저 1단계 통제변인이 투입된 회귀모형은 아동의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12.55, p < .001$). 즉, 한부모 가정의 아동이 아닌 경우($\beta = -.10, p < .001$), 그리고 가정의 월평균소득이 높다고 응답한 부모의 아동($\beta = .09, p < .001$)일수록 높은 행복감을 보였다.

따스한 양육태도 및 부모와 대화시간 변인이 투입된 두 번째 회귀모형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116.36, p < .001$). 따스한 양육태도($\beta = .43, p < .001$)와 대화시간($\beta = .12, p < .001$)의 주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부모가 따스한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응답할수록, 그리고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아동의 행복감이 높았다. 두 독립변인의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회귀모형 3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F = 101.92, p < .001$), 따스한 양육태도와 대화시간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3 참조).

표 3. 부모의 따스함과 대화시간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N = 2,578)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β	t	β	t	β	t
아동 성	.03	1.27	.02	1.31	.02	1.32
부학력	.05	2.38*	.03	1.42	.03	1.40
모학력	-.03	-1.14	-.02	-1.17	-.02	-1.19
월평균소득	.09	4.24***	.04	2.25*	.04	2.25*
한부모여부	-.10	-4.70***	-.08	-4.25***	-.08	-4.26***
따스함			.43	24.30***	.43	23.73***
대화시간			.12	6.83***	.12	6.78***
따스함×대화시간					.02	.93
R^2	.02		.24		.24	
ΔR^2			.22		.00	
F	12.55***		116.36***		101.92***	

* $p < .05$, *** $p < .001$.

주. 한부모여부는 '0 = 양부모, 1 = 한부모'로 코딩함.

아동성별은 '0 = 남아, 1 = 여아'로 코딩함.

2) 거부적 양육태도 및 부모와 대화시간의 영향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대화시간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본 결과, 1단계 통제변인에 이어 거부적 양육태도와 부모와 대화시간 변인이 투입된 두 번째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65.63, p < .001$). 구체적으로 모학력이 낮은 아동일수록 높은 행복감을 보였으며($\beta = -.04, p < .05$), 거부적 양육태도($\beta = -.30, p < .001$)를 덜 할수록 그리고 대화시간이 길수록 ($\beta = .17, p < .001$) 행복감이 높아 거부 및 대화시간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독립변인의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회귀모형 3에서 거부적 양육태도와 대화시간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4 참조).

표 4. 부모의 거부와 대화시간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N = 2,578)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β	<i>t</i>	β	<i>t</i>	β	<i>t</i>
아동 성	.03	1.27	.02	1.33	.02	1.32
부학력	.05	2.38*	.03	1.31	.03	1.29
모학력	-.03	-1.14	-.04	-2.16*	-.04	-2.16*
월평균소득	.09	4.42***	.05	2.69**	.05	2.68**
한부모여부	-.10	-4.70***	-.08	-3.86***	-.08	-3.83***
거부			-.30	-16.08***	-.30	-16.08***
대화시간			.17	9.31***	.17	9.28***
거부×대화시간					.01	.62
R^2	.02		.15		.15	
ΔR^2			.13		.00	
<i>F</i>	12.55***		65.63***		57.46***	

* $p < .05$, ** $p < .01$, *** $p < .001$.

3) 강요적 양육태도 및 부모와 대화시간의 영향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와 대화시간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본 결과, 강요적 양육태도와 부모와 대화시간 변인이 투입된 두 번째 회귀모형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48.29, p < .001$). 구체적으로 부학력이 높은 아동일수록($\beta = .04, p < .05$), 여아일수록($\beta = .05, p < .05$)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요적 양육태도($\beta = -.22, p < .001$)와 대화시간($\beta = .19, p < .001$)의 주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두 독립변인의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회귀모형 3에서 강요적 양육태도와 대화시간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5 참조).

표 5. 부모의 강요와 대화시간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N = 2,578)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β	<i>t</i>	β	<i>t</i>	β	<i>t</i>
아동 성	.03	1.27	.05	2.52*	.05	2.55
부학력	.05	2.38*	.04	2.04*	.04	2.05
모학력	-.03	-1.14	-.03	-1.63	-.03	-1.62
월평균소득	.09	4.24***	.07	3.32**	.07	3.31**
한부모여부	-.10	-4.70***	-.09	-4.42***	-.09	-4.44***
강요			-.22	-12.05***	-.22	-12.05***
대화시간			.19	9.99***	.19	10.03***
강요×대화시간					.03	1.45
R^2	.02		.12		.12	
ΔR^2			.09		.001	
<i>F</i>	12.55***		48.29***		42.53***	

* $p < .05$, ** $p < .01$, *** $p < .001$.

4) 구조제공적 양육태도 및 부모와 대화시간의 영향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부모의 구조제공적 양육태도와 대화시간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본 결과, 구조제공적 양육태도와 부모와 대화시간 변인이 투입된 두 번째 회귀모형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57.59, p < .001$). 구체적으로 구조제공적 양육태도($\beta = .27, p < .001$)와 대화시간($\beta = .17, p < .001$)의 주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부모가 구조제공을 많이 한다고 인식할수록 그리고 부모와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아동의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독립변인의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회귀모형 3의 결과에 의하면 두 독립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04, p < .05$)(표 6 참조). 부모로부터 많은 구조제공적 양육을 받는다고 인식하면서 대화도 많이 하는 아동의 경우 행복감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부모로부터 구조제공적 양육을 덜 받으면서 부모와 대화시간도 적은 경우는 가장 낮은 행복감 인식수준을 보였다(그림 1 참조).

표 6. 부모의 구조제공과 대화시간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N = 2,578)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β	t	β	t	β	t
아동 성	.03	1.27	.02	1.01	.02	1.00
부학력	.05	2.38*	.04	1.83	.04	1.89
모학력	-.03	-1.14	-.03	-1.65	-.03	-1.61
월평균소득	.09	4.24***	.07	3.33**	.07	3.27**
한부모여부	-.10	-4.70***	-.08	-3.93***	-.08	-3.94***
구조제공			.27	14.35***	.26	14.06***
대화시간			.17	9.04***	.17	9.10***
구조제공 × 대화시간					-.04	-2.23*
R^2	.02		.14		.12	
ΔR^2			.11		.001	
F	12.55***		57.59***		51.09***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1.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부모의 구조제공과 대화시간의 상호작용 효과

5) 비일관적 양육태도 및 부모와 대화시간의 영향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부모의 비일관적 양육태도와 대화시간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본 결과, 비일관적 양육태도와 부모와 대화시간 변인이 투입된 두 번째 회귀모형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85.29, p < .001$). 구체적으로 비일관적 양육태도($\beta = -.35, p < .001$)와 대화시간($\beta = .16, p < .001$)의 주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두 독립변인의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회귀모형 3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F = 74.61, p < .001$), 비일관적 양육태도와 대화시간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표 7. 부모의 비일관성과 대화시간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N = 2,578)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β	t	β	t	β	t
아동 성	.03	1.27	.03	1.42	.03	1.42
부학력	.05	2.38*	.04	1.74	.04	1.75
모학력	-.03	-1.14	-.37	-1.89	-.04	-1.89
월평균소득	.09	4.24***	.05	2.69**	.05	2.68*
한부모여부	-.10	-4.70***	-.08	-4.02***	-.08	-4.02***
비일관성			-.35	-19.68***	-.35	-19.65***
대화시간			.16	8.65***	.16	8.65***
비일관성×대화시간					.01	.26
R^2	.02		.19		.19	
ΔR^2			.16		.00	
F	12.55***		85.29***		74.61***	

* $p < .05$, ** $p < .01$, *** $p < .001$.

6) 자율성지지적 양육태도 및 부모와 대화시간의 영향

마찬가지로,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부모의 자율성지지적 양육태도와 대화시간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본 결과, 자율성지지적 양육태도 및 부모와 대화시간의 주효과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부모가 자율성을 지지하는 양육을 한다고 인식할수록($\beta = .41, p < .001$) 아동의 행복감이 높았으며, 부모와 대화시간이 많을수록($\beta = .14, p < .001$) 행복감이 높았다(표 8 참조).

표 8. 부모의 자율성지지와 대화시간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N = 2,578)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β	t	β	t	β	t
아동 성	.03	1.27	.04	2.10*	.04	2.08*
부학력	.05	2.38*	.02	.84	.02	.87
모학력	-.03	-1.14	-.02	-1.04	-.02	-1.03
월평균소득	.09	4.2***	.05	2.82**	.05	2.80**
한부모여부	-.10	-4.70***	-.69	-3.54***	-.07	-3.56***
자율성지지			.41	23.24***	.41	22.66***
대화시간			.14	7.71***	.14	7.74***

표 8. 계속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β	t	β	t	β	t
자율성지지×대화시간					-.02	-.93
R^2	.02		.23		.23	
ΔR^2			.20		.00	
F	12.55***		108.71**		95.23***	

* $p < .05$, ** $p < .01$,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부모의 영향력에 주목하고,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모와 대화시간이 아동의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다루어졌던 두 변인의 영향력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부모와 아동 간 관계의 양과 질의 영향력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이 아동의 행복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 상관관계 결과에 의하면, 사회인구학적 변인들 중 아동의 성을 제외한 월평균 가정소득, 부의 학력, 모의 학력, 한부모여부가 아동의 행복감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이후 수행된 회귀 분석 결과와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부모 변인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 분석에서 통제변인으로 투입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의 영향력을 보면, 투입된 4개 변인들 중 가정의 월평균 소득, 아버지의 학력, 한부모여부의 3개 변인만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한부모 가정이 아닌 경우 아동이 지각하는 행복감이 높았다. 이는 경제적 수준이 높은 아동이 낮은 아동보다 행복감이 더 높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들(신승배, 2016; Powdthavee & Vernoit, 2013)과 일치하는 반면, 초등학생의 행복감은 가구의 경제적 형편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한 김진미(2019)의 결과와는 상반된다. 김진미(2019)의 연구에서 분석에 활용된 가정의 소득수준은 아동에 의해 지각된 것이 아닌 부모 보고에 의한 객관적인 지표라는 점에서 볼 때, 가정소득 자체보다는 이에 대한 아동의 인식이 그들의 심리적 특성인 행복감에 보다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부모 학력의 영향력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부와 모의 교육수준이 모두 아동의 행복감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선행연구의 결과(Jin & Ahn, 2019)와 다소 불일치한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부의 학력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상관분석 결과에 의하면 부학력과 모학력 모두 행복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인다. 영향력 분석에서 모학력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부학력과 모학력 간의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부모가정 여부에 따른 영향력의 경우, 한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이 양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보다 행복감의 수준이 낮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김소은, 정익중, 정수정, 2016; 유은경 등, 2017)과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력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들

은 가족구성원의 물리적 부재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일상에서 활용 가능한 인적, 물적, 시간적 자원의 투자에 차이를 야기하고 이것이 일상 경험의 결핍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수지, 정익중, 2020)을 뒷받침한다. 즉,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은 일상의 경험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아동이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과 행복감의 차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아동의 행복감 향상을 위한 노력은 개별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 하위요인인 따스함, 거부, 강요, 구조제공, 비밀관성, 자율성지지는 모두 아동의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주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긍정적 양육태도로 할 수 있는 따스함과 구조제공, 자율성지지가 높다고 지각할수록 아동의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양육태도인 거부, 강요, 비밀관성을 낮게 지각할수록 행복감이 높았다. 이는 아동이 지각하기에 부모가 온정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을 하는 것과 같이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며 간섭, 강요, 방임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덜 보이는 것으로 느낄 때 높은 행복감을 보였다는 선행연구(박진희, 황지연, 정채은, 이예은, 유미숙, 2011; 배주영, 도현심, 이선희, 신정희, 201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외에도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이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의 결과(이미영, 2020; Furnham & Chen, 2011; Holder & Coleman, 2009)들과 함께 부모와의 관계의 질이 어떠한가에 따라 아동의 행복감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태도가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강수현, 2019)와 같이 상반된 결과를 보인 연구도 있다. 긍정적 양육태도가 행복감을 높이고 부정적 양육태도가 행복감을 낮춘다는 본 연구 및 다수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적용해볼 때, 이는 아동들 중 일부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를 적절한 애정과 관심보다는 과보호 형태로 인식(정은선, 조한익, 2009)하여 어머니에게 의존하고 독립적 수행을 어렵게 하는 등의 부정적인 기능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셋째, 부모와의 대화시간 역시 아동의 행복감에 대해 주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 대화를 많이 한다고 응답할수록 행복감도 높았다. 이는 하루 평균 부모와 자녀의 대화 시간이 1시간 이상인 아동이 30-59분과 30분 이하인 아동보다 행복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Jin & Ahn, 2019). 또한 높은 수준의 가정 지지와 가정 내 대화가 더 많을 경우 행복감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조은정, 2014)를 지지해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패널데이터의 경우 부모와의 대화시간을 실제 시간이 아닌 30분 단위의 범주로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응답 아동들의 평균 부모와 대화시간은 4.29점으로 나타났고 이는 약 1시간 30분~2시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구체적으로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의 대화를 하는 것이 아동의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임을 제시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대화’의 개념을 양적인 측면으로만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부모와의 대화는 매우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다. 즉, 부모의 일방적인 지도나 잔소리, 아동의 일방적인 설명, 또는 부모와 아동 간의 상호적인 긍정적 혹은 부정적 대화 등 모든 형태의 대화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변인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지극히 양적인 요인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부모와의 관계의 양 역시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기존 선행연구에

서 대화의 양이 많은 것이 꼭 긍정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대화의 많은 양 중에는 부정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포함될 수 있음을 설명하기도 한다(김희연 등, 2015). 그러나 긍정적 양육태도와 대화시간의 정적 상관 및 부정적 양육태도와 대화시간의 부적 상관이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대화시간의 양적 증가가 긍정적 부모자녀 관계와 관련됨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를 통해 부모와 대화 양의 증가는 그 자체로서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모와 대화시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였다. 따스함, 거부, 강요, 구조제공, 비밀관성, 자율성지지의 6개 하위요인 중 구조제공의 양육태도와 대화시간의 상호작용효과만이 아동의 행복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규칙을 설명해주거나 문제해결을 위해 도움을 주고 논리적으로 지도해주는 등의 구조제공적 양육을 많이 하는 부모와 대화를 많이 할수록 아동의 행복감이 특히 높았다. 반면, 구조제공적 양육을 적게 하는 부모와 대화도 적게 하는 경우에 가장 낮은 행복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는 대화시간은 많은데 양육태도가 나쁜 경우 혹은 양육태도는 좋은데 대화시간이 적은 경우에 비슷한 행복감 수치를 보였다는 점에서, 양과 질의 어느 한쪽이 부족할 때 다른 한 쪽의 긍정적인 면이 그 부족한 면의 부정적 효과를 큰 폭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쇄시켜준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종합할 때, 이러한 결과들은 아동의 행복감을 설명함에 있어 양육태도와 대화시간 등 부모와의 관계의 질적, 그리고 양적인 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아동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와 관계의 양적, 질적 요소인 양육태도와 대화시간 모두를 동시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한편, 다양한 양육태도 하위요인 중 구조제공에 대해서만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 아동기 발달과업과 연결하여 해석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4학년은 발달시기 상 아동기에서 벗어나 청소년기로 진입을 시작하는 변화의 초기단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기의 특성에서는 다소 멀어지기는 하나 아직 청소년기의 특성을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 시기로 예측된다. Erikson(1950)의 심리사회적 이론에 의하면, 이 시기의 발달과업은 근면성 대 수치심이다. 따스한 애정에 기초한 신뢰감 형성이나 자율성지지를 통한 독립심의 획득과 비교할 때, 근면성은 부모의 논리적 문제해결 지도 등을 통해 획득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의 발달과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구조적 제공과 더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하겠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아동 발달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행동적 통제는 아동이 균형 있게 발달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된다(Finkenauer, Engels, & Baumeister, 2005). 따라서 부모의 행동적 통제를 아동이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한 적절한 안내와 설명 또는 지도로 감안한다면, 따스함이나 자율성지지가 높은 부모와의 대화 효과보다는 논리적 설명과 지도, 문제해결의 가이드 등을 제공하는 부모와의 대화가 더 많아질수록 더 큰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구조제공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부모와 더 많은 시간 대화를 하는 것은 학령기 아동의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아동의 행복감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다도 부모는 따스하고 자율성지지적이고 구조제공적인 양육태도를 보여야 하며 반대로 거부적, 강요적, 비일관적 양육태도를 줄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자녀 간의 대화시간을 양적으로 늘리는 것 역시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그리고 대화시간을 늘림에 있어 특히 자녀에게 한계를 설정해주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지도하는 대화를 많이 한다면 아동의 행복감은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아동들 역시 부모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스스로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호작용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중요한 자원으로 여겨진다(문수경, 이무영, 2008). 특히 부모-자녀 간 대화의 경우 부모에 의해 일방적으로 혹은 주도적으로 제공되는 환경이기보다는 그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동등한 대화의 주체로 참여하는 환경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부모와의 대화 양을 늘리는 것은 아동의 능동적인 노력이 함께 필요하며, 또한 한편으로는 아동의 능동적인 노력을 통해서도 변화가 가능한 융통성이 높은 자원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부모와 대화시간의 긍정적 영향력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와 자녀 간 관계의 양적 측면의 중요성을 시사해준과 동시에, 이와 더불어 아동의 행복감 향상을 위해 부모뿐 아니라 자녀 스스로 적극적인 대화참여와 유도를 통해 시간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첫째, 본 연구는 패널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분석변인의 자유로운 선정에 제한이 있었다. 아동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관련 변인의 질적 측면과 양적 측면을 함께 분석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양육태도와 대화시간을 선택하였다. 부모와 대화의 경우 대화의 방식이나 내용 등 질적인 면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에서는 대화시간과 함께 의사소통 방식과 내용 등 직접적인 질을 분석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는 한 시점에 측정된 데이터를 횡단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특히 사춘기에 접어드는 시기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대화시간의 변화, 행복감의 변화 등을 분석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자료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화시간을 조사함에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양육태도와 대화시간이 아닌 부모에 대한 전반적인 양육태도와 통합적인 대화시간을 측정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의사소통의 양과 질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아직 청소년으로 보기 어려운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경우, 어머니와는 관계중심, 생활중심의 경험과 대화를 할 가능성이 있고, 아버지와는 놀이중심의 경험과 대화를 나눌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후 연구에서 아버지의 영향력과 어머니의 영향력을 분리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면 아동의 행복감 영향요인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방대한 양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행복감을 분석함으로써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변인을 파악함에 있어 부모와 관계의 질적, 양적 영향력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제언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에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강수현 (2019).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 존중감 및 학교적응의 매개효과: 초등학교 1학년 중심으로.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3(2), 165-194. doi:10.22590/ecee.2019.23.2.165
- 권미나, 이진숙 (2015).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행복감과 관계. **아동과 권리**, 19(4), 589-610.
- 김소은, 정익중, 정수정 (2016). 아동의 사회적 배제의 영향요인. **청소년복지연구**, 18(3), 1-23. doi:10.19034/KAYW.2016.18.3.01
- 김영철 (2018). 월화수목금금금, 우리의 아이들은 행복한가?: 사교육(및 여가시간)과 학생 만족도 간의 통계적 상관성 추정. **경제학연구**, 66(2), 45-86. doi:10.22841/kjes.2018.66.2.002
- 김은설, 배윤진, 조숙인, 이예진, 송신영, 임준범 등 (2016). **한국아동 성장발달 중단연구 2016(한국아동패널 II)**(2016-35).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http://repo.kicce.re.kr/handle/2019.oak/924>에서 2020년 12월 15일 인출
- 김진미 (2019). 초등학생의 행복감 영향요인 분석. **교육연구논총**, 40(3), 161-180. doi:10.18612/cnujcs.2019.40.3.161
- 김태명, 이은주 (2017).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PSCQ_KA)의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24(3), 313-333. doi:10.21509/KJYS.2017.03.24.3.313
- 김희연, 김군수, 신기동, 송승현 (2015). **아이 행복, 부모교육에 달렸다**(제174호). 경기: 경기개발연구원. <https://www.gri.re.kr/%ec%9d%b4%ec%8a%88-%ec%a7%84%eb%8b%a8/?brno=5117&prno=4521>에서 2020년 12월 15일 인출
- 김희중 (2012). 중학생의 긍정심리와 부모양육태도, 학습몰입, 학업성취도와와의 관계.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궁지영 (2015). 초등학생의 학교생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학교변인 탐색. **교육학연구**, 53(2), 1-25.
- 류민영, 정현숙 (2015).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감 모형에 대한 다집단 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9(4), 21-43.
- 모상현, 이중섭 (2012).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탐색: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가족관계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홀리스틱교육연구**, 16(3), 23-40.
- 문수경, 이무영 (2008).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복지연구**, 6(3), 19-33.
- 박병선 (2019).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 궤적 및 성별 간 차이분석. **인문사회** 21, 10(1), 1121-1132. doi:10.22143/HSS21.10.1.78
- 박정은, 황춘화, 이수천 (2019).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보건과 복지**, 21(1), 97-120. doi:10.23948/kshw.2019.03.21.1.97
- 박진희, 황지연, 정채은, 이예은, 유미숙 (2011). 아동이 지각한 통제적 양육태도 수준에 따른 아버지상 및 아동행복감의 차이. **상담학연구**, 12(4), 1247-1260. doi:10.15703/kjc.12.4.201108.1247

- 배상률, 김형주, 성은모 (2013). **2013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 조사(2103-R28)**. 서울: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에서 2020년 12월 20일 인출
- 배주영, 도현심, 이선희, 신정희 (2015).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또래와의 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가 학령 후기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6**(6), 59-83. doi:10.5723/KJCS.2015.36.6.59
- 서재욱, 정운태 (2014). 개인능력, 가족환경, 학교환경 변인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1**(8), 265-292.
- 송경오 (2011). 학생 개인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특성 탐색. **한국교육**, **38**(4), 39-64. doi:10.22804/jke.2011.38.4.002
- 송원숙, 심재웅 (2018). 부모와 자녀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3), 857-879. doi:10.22251/jlcci.2018.18.3.857
- 신승배 (2016). 한국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문사회과학연구**, **17**(3), 135-184. doi:10.15818/ihss.2016.17.3.135
- 안나영, 유영달 (2013). 청소년이 지각한 부, 모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우울감 및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5), 3201-3215.
- 염유식, 김경미 (2019). **한국 아동·청소년 행복지수조사-국제비교연구조사결과보고서(A1-2018-0001)**. 서울: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http://hdl.handle.net/20.500.12236/23361>에서 2020년 12월 13일 인출
- 유미숙, 정계숙, 박수홍, 차지량, 홍광표 (2013). 아동 및 청소년이 지각하는 행복에 대한 인식 연구. **가정과삶의질연구**, **31**(3), 15-26. doi:10.7466/JKHMA.2013.31.3.015
- 유은경, 최혜경, 배한나, 이연주 (2017). 한부모 가정 아동·청소년의 사회자본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역량의 매개효과: 양부모 가정 아동·청소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55**, 283-315. doi:10.17997/SWRY.55.1.10
- 윤연정, 이미숙 (2019).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와 모의 양육특성. **가정과삶의질연구**, **37**(4), 71-86. doi:10.7466/JKHMA.2019.37.4.71
- 이미영 (2020).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문화포럼**, **64**, 115-135. doi:10.17854/ffyc.2020.10.64.115
- 이수진, 정익중 (2020).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행복 간의 관계: 빈곤과 비빈곤 청소년의 비교. **학교사회복지**, **49**, 175-200. doi:10.20993/jSSW.49.8
- 이은진 (201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행복감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림, 김길숙, 송신영, 이예진, 김진미, 김소아 등 (2015). **한국아동패널 2015(2015-33)**.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https://kicce.re.kr>에서 2020년 12월 인출
- 이주연, 한세영 (2019. 10). **부와 모의 감독 및 청소년의 성에 따른 청소년의 행복감**. 가정과삶의질학회 2019년 추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 논문, 서울.
- 이진숙, 김은주 (2013). 아동의 기질, 부모자녀 의사소통, 또래관계가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2**(5), 433-445. doi:10.5934/kjhe.2013.22.5.433

- 임미지, 문혁준 (2011). 아동이 지각한 행복감과 일상적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인간발달연구**, **18**(2), 255-275.
- 전혜진, 이미숙 (2015). 부모-자녀 놀이치료(CPRT)가 공감적 상호작용 증진에 미치는 영향: 단일 사례 실험연구. **상담학연구**, **16**(4), 395-414. doi:10.15703/kjc.16.4.201508.395
- 정은선 (2008). 부모의 양육태도가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강인성과 완벽주의의 매개역할.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은선, 조한익 (2009). 부모의 양육태도가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강인성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209-227.
- 정익중, 이수진, 강희주 (2020).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일상 변화와 정서 상태. **한국아동복지학**, **69**(4), 59-90. doi:10.24300/jkscw.2020.12.69.4.59
- 정익중, 정선영, 이수진, 정수정 (2019).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행복생활지수**. 서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 조성연, 신혜영, 최미숙, 최혜영 (2009). 한국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 실태조사. **아동학회지**, **30**(2), 129-144.
- 조은정 (2014). 저소득층 초등학생, 중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개인, 가족, 학교요인을 중심으로 -. **청소년시설환경**, **12**(1), 53-64.
- 한겨레 (2019. 5). **아이들 ‘주관적 행복지수’ OECD 꼴지 수준 ... 언제쯤 오를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3814.html에서 2020년 12월 12일 인출
- 한국아동·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 (2019). **KCYPS 2018 초4 코호트 제1차 조사 데이터[데이터 파일과 코드북]**. <https://www.nypi.re.kr/archive/contents/siteMain.do>에서 2019년 6월 7일 인출
- Bascoe, S., Davies, P. T., Sturge, M., & Cummings, E. M. (2009). Children’s representations of family relationships, peer information processing, and school 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45**(6), 1740-1751. doi:10.1037/a0016688
- Chung, G. H., 이상균, 유조안 (2015). 청소년들은 어떤 날 더 행복한가? 부모와의 친밀감이 일상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및 가구소득과 학교 급에 따른 차이.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0**(1), 3-23.
- de Carvalho, H., & Chima, F. O. (2014). Application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social sciences research. *American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mporary Research*, **4**(1), 6-11.
- Erikson, E. H. (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Co.
- Finkenauer, C., Engels, R., & Baumeister, R. (2005). Parenting behaviour and adolescent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The role of self-control.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1), 58-69.
- Furnham, A., & Cheng, H. (2000). Perceived parental behaviour, self-esteem and happines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5**(10), 463-470. doi:10.1007/s001270050265
- Galambos, N. L., Fang, S., Krahn, H. J., Johnson, M. D., & Lachman, M. E. (2015). Up, not down: The age curve in happiness from early adulthood to midlife in two longitudinal studies. *Developmental Psychology*, **51**(11), 1664-1671. doi:10.1037/dev0000052

- Gilman, R., & Huebner, S. (2003). A review of life satisfaction research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School Psychology Quarterly, 18*(2), 192-205. doi:10.1521/scpq.18.2.192.21858
- Holder, M. D., & Coleman, B. (2009). The contribution of social relationships to children's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0*, 329-349. doi:10.1007/s10902-007-9083-0
- Jin, B. K., & Ahn H. Y. (2019). Factors influencing the happiness of late school-aged children: A focus on family strength and self-control. *Child Health Nurs Res, 25*(3), 245-254. doi:10.4094/chnr.2019.25.3.245
- Lyons, M. D., Otis, K. L., Huebner, E. S., & Hills, K. J. (2014). Life satisfaction and maladaptive behaviors in early adolescents. *School Psychology Quarterly, 29*(4), 553-566. doi:10.1037/spq0000061
- Masoud, G. L., Sharzad, B., Leila, A., & Elaheh, H.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styles, social support with psychological well-being. *Procedia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 15*, 1852-1856. doi:10.1016/j.sbspro.2011.04.014
- Milevsky, A., Schlechter M., Netter, S., & Keehn, N. (2007). Maternal and paternal parenting styles in adolescents: Associations with self-esteem, depression, and life-satisfactio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6*(1), 39-47. doi:10.1007/s10826-006-9066-5
- Morgan, M. L., Vera, E. M., Gonzales, R. R., Conner, W., Vacek, K. B., & Coyle, L. D. (2011). Subjective well-being in urban adolescents: Interpersonal, individual, and community influences. *Youth & Society, 43*(2), 609-634. doi:10.1177/0044118X09353517
- O'Rourke, J., & Cooper, M. (2010). Lucky to be happy: A study of happiness in Australian primary students. *Australian Journal of Educational & Developmental Psychology, 10*, 94-107.
- Powdthavee, N., & Vernoit, J. (2013). Parental unemployment and children's happiness: A longitudinal study of young people's well-being in unemployed households. *Labour Economics, 24*, 253-263. doi:10.1016/j.labeco.2013.09.008
- Thomas, E. J. (1977). *Marital communication & decision making*. New York: The Free Press.
- Yang, F., Knobe, J., & Dunham, Y. (2020, April). *Happiness is from the soul: The nature and origins of our happiness concept*. Retrieved December 13, 2020 from <https://psyarxiv.com/3kqw9>
- Yang, Y. (2008). Social inequalities in happiness in the united states, 1972 to 2004: An age-period-cohort analy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3*(2), 204-226. doi:10.1177/000312240807300202

논문투고: 20.12.15
수정원고접수: 21.01.04
최종게재결정: 21.02.10